

01 교회소식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고스란히 전달 하며 국내외 수많은 독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선과 사랑,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성전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03 기획특집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 이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쉽고 행복하다.

04 간증

“인생문제, 믿음으로 해결하세요”

실명된 눈의 시력이 살아나 보게 된 인도 뱀부 형제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 영의 마음을 이룬 양인이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721호 2016년 1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새해,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찾자 변화와 생명을 체험케 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왼쪽부터 서동민 집사, 콩고민주공화국 데지레 성도 부부, 문태규 목사, 인도 블레시 아동, 페로제도 한센 성도, 김태영 권사).

페로제도에 거주하는 메이프리트 웨이해 한센 성도는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의와 진리, 참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졌던 많은 궁금증이 속 시원히 풀렸고 영적인 통찰력도 갖게 되었지요. 영의 세계와 천국에 대해 깨닫게 된 후 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해졌습니다.”라고 말한다.
선천성 농아인 그녀는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우리 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기도로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었다(사진 5).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는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로브호 카무한다 데지레 성도에게 인생의 전

환점이 된 책이다. 그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만민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이재록 목사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요.”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아내와 함께 킨샤사만민교회 성도가 된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재정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기도하니 육군 대령으로 승진하였고, 그의 아내도 매일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사진 2).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자세히 풀이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스무 번 반복해 읽은 우리 교회 서동

민 집사는 “그동안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느껴지고 제 입술이나 마음, 생각이 비진리 쪽으로 기울어지려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사랑의 말씀이 떠올라 멈추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습시다.”라고 간증하였다(사진 1).
한편, 이재록 목사의 100번째 저서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은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 1월 4일(월)에 열린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밀양만민교회 문태규 담임목사는 “책을 읽은 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궁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이 잔상으로 남

아 제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니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 그 말씀이 적용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사진 3).
은상을 수상한 구미만민교회 이석철 장로는 독후감을 통해 “우리가 일상으로 알던 것에 영적인 웃을 입힌 내용이 많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지혜로운 글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과 순종, 경외와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세상이 좀 더 평화와 배려가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는 설교집과 방송설교집, 주제설교 모음, 장년 및 아동·학생 공과교재, 성도간증집, 칼럼모음, 신앙예세이 등 다양한 종류로, 100권의 한국어 책자와 59개 언어 300여 권의 다국어 책자가 발간되어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6)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성전을 받고자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한결같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고 사랑장,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믿음의 분량, 영혼육의 말씀 등 성결을 이루는 핵심적인 말씀들을 가르쳤지요.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영적으로 소경과 귀머거리처럼 무감각한 영혼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기운이 소진되는 상황에 이르면서도 끊임없이 외친 결과, 참으로 소중한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열매는 바로 목자와 신뢰로 하나 되어 함께 힘이 될 일꾼과 성도들이었으며, 온 영과 영으로 나온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하나 된 사람들을 주축으로 더 많은 이가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도록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성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목자와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의 주역이 되려면 목자와 온전한 신뢰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런 분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권능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지요. 목자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참이 되기까지 각자 필요한 공의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채워야 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영과 온 영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영광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신 대로 전 세계의 구원받은 만한 무수한 영혼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지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이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

1) 각자가 맡은 사명에서 열매를 통해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에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으로서 재창조의 권능이 완성을 이루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때 온 영과 영의 열매들이 최선봉에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지요. 전 세계 곳곳으로, 또 국내 교계로 그리고 각자가 맡은 사역지로 나아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러한 사역은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도 영의 열매, 온 영의 열매가 되어 동참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찢러 쪼개어서 영혼들이 변화되게 해야 하지요. 순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행 19:11-12) 귀신이 떠나고 질병들이 치료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등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불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분야에서 뒷받침해 줄 일꾼들이 있어야 하지요.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뛰며 곁에서 도와 줄 사람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통해 돕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그들도 모두가 영과 온 영의 열매가 되어 권능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능위원회의 찬양과 특송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통회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의 세력이 떠나게 되지요. 방송 분야에서도 권세와 능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많은 영혼을 깨우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재정, 전산, 교무 등을 비롯한 행정과 그 밖의 여러 부서도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받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고 보장받는 것입니다.

2)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영과 온 영의 열매로 나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고전 10:31). 또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지요(마 5:16).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민의 이름이 칭송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이 제단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날이 얼마나 사모되는지요.

대성전 건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 역사의 역사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러한 대성전을 이루는 때가 되면 영과 온 영의 열매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곳곳에 가득 넘쳐지요. 그러니 대성전 건축 자체로도, 모인 사람으로 인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예컨대, 스포츠 선수가 세계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영광이 되고 위상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많이 차지한 나라가 제일 큰 영예를 얻지요. 마찬가지로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온 이들이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개인은 물론 이 제단에도 큰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뿐 아니라 우리 만민의 제단에도 크나큰 영광과 상급을 주기 원하시지요.

2016년은 우리와 만민의 제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대성전 건축과 더불어 영과 온 영의 열매들이 이루게 될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난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시 37:6). 전 세계 만민이 다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세세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칠 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

1) 영과 온 영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지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더불어 성경 66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지요.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교통을 이루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 성막을 시작으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은 훼파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건축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선과 사랑, 빛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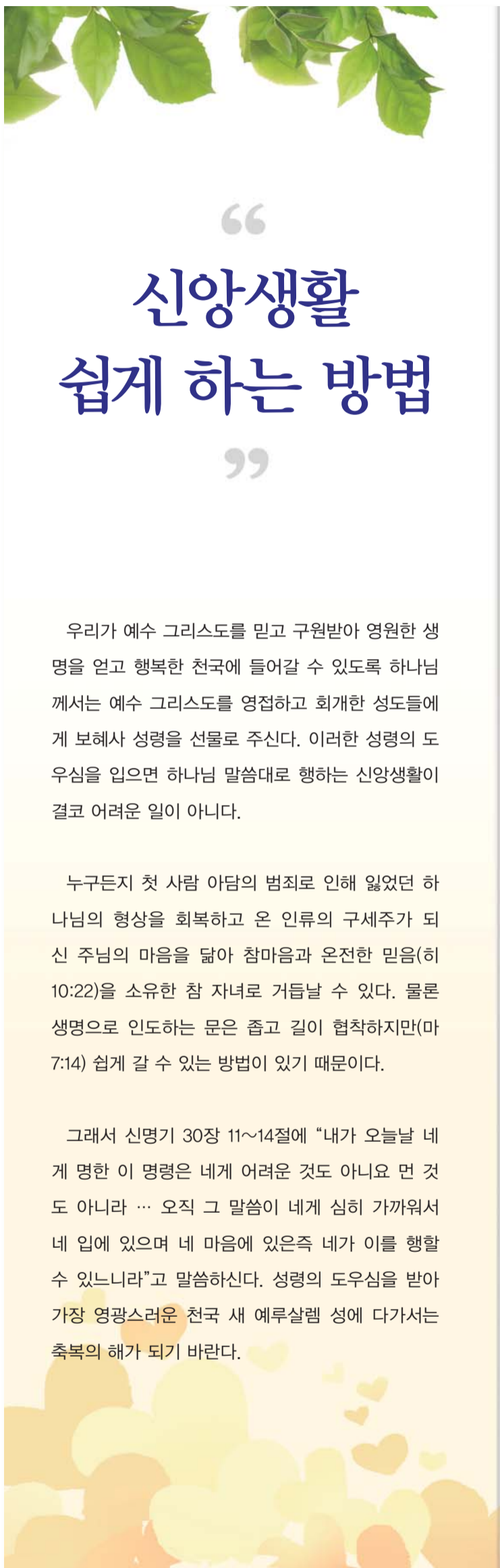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을 소유한 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마 7:14)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14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다가서는 축복의 해가 되기 바란다.

하나.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정녕 살아 계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신앙의 목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쫓는다. 설령 상대로부터 거절당하고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들어도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자신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힘들지 않게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둘.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야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개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장애물이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변개하지 않고 실행해 나갈 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만일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힘들지 않다.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중간에 쉬고 싶거나 내려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반면에 정상을 향해 변개함 없이 가는 사람은 설령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그 길이 힘들지 않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가장 좋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목표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일 터이니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닮고자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벗어버릴 것이다. 반면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순종해 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변개하는 마음 하나만 버려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수월하다. 이뿐 아니라 다른 비진리도 쉽게 버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신속히 갖추 수 있다. 변개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자체를 빼내버리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속히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

셋.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정상에 오르고 나면 행복감이 맞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목표가 있기에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의 비진리가 발견될 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며 힘들어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버리나?’ 하며 아까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진리를 발견하여 버려 나감으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행복하게 벗어버릴 수 있다.

만일 등산을 하면서 배낭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안에 쓸데없는 물건이 들어 있다면 이것을 버리면서 ‘아깝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라면 되도록 더 많이 버려서 짐을 가볍게 하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마음의 비진리가 발견되었다면 빨리 버리고, 버릴 것이 많이 발견된다면 더 기뻐해야 한다. 아차피 쓸데 없는 것이니 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만큼 신앙생활이 더 쉽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죄를 발견하여 버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며, 주님을 닮아 성결을 이루니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해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혹여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신앙생활은 쉽고 행복한 것이라고 아예 마음 자체를 바꾸자.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의 영광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01 JANUARY 2016.1.17~1.23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 ■ 일곱영 1 ■ 죄의 뿌리와 성결 1-2 ■ 3차 영혼육 1-5 ■ 창세기 강해 98-102 ■ 십자가의 도 18-22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믿음을 책망하시니 12-1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15 	GCN TV설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시행하리니 2-6 (이수진 목사) ■ 교만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6 (이화선 목사) ■ 믿음의 분량 1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7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10 (김수정 목사) ■ 우린 하나 (고경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0 ■ 내 마음의 찬양 25 ■ 창조와 과학 8 ■ English 9 ■ 모두 드려요 42 ■ 뷰티풀 라이프 8 ■ 즐거운 요리 26 ■ 흥겨운 소리 8 ■ 옛날 옛적에 2 ■ 플로리스트 12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5 ■ 회상 (시즌2) 9
	GCN TV 채널 kt olleh tv 882번			

“17년간 실명되었던 오른쪽 눈의 시력이 살아나 이제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빠부 꾸마르 다스 형제 (25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후 불우한 날들을 보내던 빠부 형제는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제가 여덟 살 때의 일입니다. 외할머니 농장에서 옥수수 밭을 헤치고 가다가 옥수수 잎 끝의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 눈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과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통해 눈에 박힌 것을 빼내었지만 사물이 뿌옇게 보였고 얼마 후에는 그조차도 보이지 않았지요. 시력 회복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두 살 되던 해에는 각막이식 수술을 하였고, 그 뒤에도 두 차례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실명하고 이상하게 변한 저의 눈을 보며 친구들이 놀려대고 조롱하니 늘 슬픔 가운데 울며 지냈습니다. 제 자신을 비관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요.

장차 헤쳐 나가야 할 앞날이 막막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촌형이 권능 CD를 주며 믿음을 가지고 권능의 종에게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불치·난치병에 걸린 많은 이가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2014년 11월부터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GCN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설교 후 해 주시는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오른쪽 눈의 통증이 감소되고 색깔 있는 물체가 보이는 역사가 있었지만 잠시뿐이었지요. 당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응답받는

방법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므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뜻을 좇기 시작하였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믿음과 정성을 내보여야 하는지 깨달아가며 아침, 저녁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환자기도를 받고 40일 동안 한 끼 음식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교회창립 3주년을 맞아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설교 후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오른쪽 눈과 머리의 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눈물도 멈추었을 뿐 아니라 빛과 색깔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력은 점차

호전되어 움직이는 물체의 형상은 물론, 글씨까지 조금씩 읽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할렐루야!

이 외에도 하얗게 덮여있던 눈동자까지 점차 검게 변해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의 복음, 행복의 열쇠예요”

양은이 권사 (54세, 대전만민교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천국 소망도 뚜렷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1988년 6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고향 선배의 인도로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넘치게 되었지요.

이듬해 결혼하여 남편(박대영 장로)의 직장이 있는 대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지만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는 신앙생활을 위해 다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1991년 8월, 대전만민교회가 세워지면서 대전으로 내려와 개척멤버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였지요.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기쁨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상도 모르는 서양교를 믿고, 장남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절도 안하니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던 아들 백일잔치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삼신할머니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밥을 떠놓고 수저를 꽂는 순간, 아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어머니가 하셔서 그래요. 빨리 수저를 빼세요. 저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님은 겁에 질려 얼른 수저를 빼셨고 신기하게도 아이는 바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귀한 손자를 잃을 뻔했다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지요. 그 뒤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시부모님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후 시동생들도 교회에 나와 가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의 무리한 대출과 사업 투자로 인해 물질의 연단을 받았습니니다. 이런 와중에 시어머님이 소천하셨고 편찮으신 시어머님을 제가 모시면서 대소변까지 받아내니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의 악들이 발견되었지요.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신 룯의 선한 마음을 닦고자 노력하며 정성껏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2012년 12월, 시어머님은 소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업터를 허락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2015년 전반기에 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 내를 속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를 회개한 후 최대한 회원들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격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고

스스로 한계로 여겼던 분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적용해 갔지요. 그랬더니 2015년 12월, 하나님 은혜로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 대전만민교회의 기동 박대영 장로, 양은이 권사, 박선교 형제 가족.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안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공주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4)748-577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